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

신성만(한동대 심리학과 교수)
이다슬, 김예인(한동대 심리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적지향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성적으로 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양성 등 다양한 성을 가리키는데 개념이 모호하여 학자마다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성애자가 아닌 경우, 보통 LGBT라는 약어로 분류하여 표현했으나 이후 LGBTQ 또는 LGBTQIA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성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주장에 따라 14글자인 LGGBTTQQAAPP를 사용하였다(Collegiate Times, 2014). LGGBTTQQAAPP는 Lesbian, Gay, Genderqueer¹⁾, Bisexual, Bigender²⁾, Transgender, Trans, Queer³⁾, Questioning⁴⁾, Intersex⁵⁾, Asexual⁶⁾, Agender⁷⁾, Pansexual and Polyamory⁸⁾를 의미한다. Collegiate Times(2014)의 칼

럼니스트 Julia Lattimer는 14글자 안에 여전히 모든 성적 소수자를 포괄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모든 성별과 성적소수자를 나타내는 약어인 GSM(Gender and Sexual Minorities)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어떤 이들은 GSM보다 GSD(Gender and Sexual Diversity)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Pink News, 2013). 이렇게 다양한 성을 의미하지만, 주로 동성 간 성적 행동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학자들은 성적지향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정의하기도 한다(Bailey et al., 2016).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성 선호(sexual preference)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친동성애 그룹은 성 선호보다 성적지향의 용어를 지향한다. ‘선호’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동성애자가 된 것에 대해 개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의 취향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The Slate, 2013).

Laumann(1994)은 성적지향을 행동(behavior), 욕구(desire), 정체성(identity) 3가지 요소인 세 가지 요인 모델(The three-factor model)로 정의하였다(Okami, 2014; Laumann, 1994). 먼저 행동적 측면에서는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의 성을 뜻하고, 욕구적 측면에서는 성행위를 한다고 상상했을 때 기대되는 사람의 성을 나타낸다. 정체성(identity)은 동성애자, 이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와 같은 자기의 성적 결정에 적용하기로 선택한 성을 나타낸다. 3가지 요소로 구분할 경우, 행동에 있어서는 동성애자일 수 있지만 욕구와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성애자일 수 있으며 특히, 욕구는 다른 요소들보다 대부분의 성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엔진 역할을 하는데 이를 욕구 주도 모델(The desire-driven model)이라고 부른다(Okami, 2014). 이 모델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이성애자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동성애자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지향의 패턴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유동적임을 나타낸다.

성적 유동성(Sexual Fluidity)

Lippa(2007)가 53개 국가의 200,000명이 넘는 참가자의 성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성적지향 패턴이 더 다양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Okami, 2014). 또한, 16~23세사이의 80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Diamond(2009)의 종단연구에서도 여성들 사이에서 유동성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Bailey et al, 2016; Diamond, 2009). Mayer과 McHugh(2016)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지향에 대해 종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동성에게 성적매력을 느낀다고 한 남성 청소년의 80%가 성인이 되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함으로써 성적지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사람의 인생 동안 꽤 유동적임을 결론지었다(Mayer & McHugh, 2016). 이러한 유동성은 성적지향성이 유전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일란성 쌍둥이(Monozygotic Twins) 연구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과학적 증거는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높은지 확인하는 것이다(길원평, 도명술, 이명진 외, 2017). 실제로, Langstrom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의 일란성 쌍둥이 7,652명을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남성은 9.9%, 여성은 12.1%로 보고되었다. 이전 Bailey 등(2000)의 연구에서도 10% 내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일치 비율은 동성애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성적지향이 유동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어냈으며, 타고난 것이 아닌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기 때문에 성적지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잘못된 지식을 사실로 알고 있거나(길원평, 2017)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참하고 있다(, 2017).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관련 인식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

동성애 인식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의식, 성 윤리, 성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에 비해(김병림, 2009; 김효진, 2015; 윤성현, 2016; 채은정, 2010; 함익영, 2007 등) 기독교 청년을 대상으

로 한 성 의식 조사나 동성애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는 미비한 편이다. 대상이 청년인 경우, 이성 교제 현황 및 결혼관을 조사한 임연미(2004)의 연구나 신앙과 연애관, 결혼관, 결혼생활관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이명조(2003)의 연구와 같이 결혼에 초점을 맞춘 주제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독교 성 윤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은 조연옥(2003)의 연구가 있었다. 조연옥(2003)의 실태조사에서 약 80% 정도의 청년들이 스스로 기독교 성 윤리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국교회의 성교육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교회가 성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이영주, 2017). 이전보다 더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 속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를 접할 때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가 만족할 만한 교육을 제공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단위: 빈도(%)

단위: 빈도(%)

단위: MEAN±SD

						$\chi^2(p)$
						69.08*
						**
						(.000)
						53.20*
						**
						(.000)

						$\chi^2(p)$
						17.69**
						*
						(.001)
						13.04*
						(.011)
						43.66**
						*
						(.000)

						$\chi^2(p)$
)
						24.60**
						*
						(.000)
						31.90**
						*
						(.000)

--	--	--	--	--	--

단위: MEAN±SD

							$\chi^2(p)$
							17.14** (.004)
							13.93* (.016)

단위: 빈도(%)

단위: MEAN±SD

			t(p)
			-1.07 (.885)
			2.97** (.003)

단위: 빈도(%)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동성애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한 매체와 주로 접하는 매체로 TV와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회를 통해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1%에 불과했다. 즉, 기독 청년은 동성애 관련 정보를 교회가 아닌 미디어에 의존하여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성애가 에이즈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동성애를 에이즈 발병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기독 청년은 한국 전체 인구의 동성애자 비율을 실제 비율이라 추정되는 2% 미만 보다 더 많다고(‘전체 인구의 10% 이상’ 34.75%(61명), ‘5% 정도’ 26.7%(47명)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자신이 동성애를 경험했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은 신앙 관련 문제(49.1%)와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서의 문제(29.4%) 순으로 나타났고 에이즈 및 각종 질병의 감염(10.4%)에 대해서는 높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섯째, 기독 청년 대부분(80.7%)은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 같은 이유에 대한 문항에서는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73.2%)이라는 것이 가장 많았다. 여섯째, 대상자 중 31명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이와 같은 입장 변화에 교회교육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대상자 중 5명에 한하여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 변화했는데 이 변화에 영향을 준 변인으로는 미디어 매체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그 외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 태도에 대한 실망, 성경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일곱째,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청년의 평가가 만족스러웠다. 여덟째, 기독 청년의 동성애 죄 인식에 있어 교회 차원의 적극성뿐만 아니라,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등의 개인적 신앙생활과 성적 개방성과 같은 개인 차원의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나이가 어릴수록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동성애 죄 인정에 대한 비동의 응답이 높았다.

참고문헌

(요약) 기독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

신성만(한동대 심리학과 교수)

이다슬·김예인(한동대 심리학과 석사과정)

최근, 한국사회와 교회에서는 동성애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각자 입장에 따라 찬성, 반대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송덕영, 2017). 친동성애 그룹은 '문화'와 '성소수자'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오성중, 2017).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이경직, 2017),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의 측면에서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다양한 성적 행동 중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신성욱, 2017). 실제로 2007년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송덕영, 2017), 특히 2012년부터 이후 계속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동성애에 반대를 표시하는 교회들에 대해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으며(국민일보, 2017), 일반 대중들도 교회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2017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해 물었을 때 20대에서만 찬성이 66%였고, 30대와 40대는 오히려 반대가 각각 52%, 54%로 나타나 세대 간의 인식 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재영(2013)이 1,000명의 20~30대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성 의식 및 성 경험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3%, 실제로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 청년도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적인 모습을 보임을 의미하고, 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정재영, 2013)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동성애를 포함하여 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신성만 교수의 “기독교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에 대한 논평

송화성(백석문화대 교수, 교목)

I. 논문 설명

이 논문은 먼저 현재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 성적지향 그리고 개인의 성적 유동성을 정리하고 있다. 이어 2003년 이래 2017년까지의 선행연구 소개해서 잘 몰랐던 이들도 흐름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측정도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의 연구결과를 말한다.

첫째, 동성애를 처음 접한 매체 - TV와 인터넷 : 교회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적음.

둘째, 동성애가 에이즈 발병의 원인으로 인식

셋째, 동성애 경험 시 걱정은 신앙>사회생활>...에이즈 등 질병문제 순

넷째, 동성애는 “죄”로 인식해 대부분 비수용적이고

다섯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변화한 경우도 있는데, 변인은 다양함을 말한다.

여섯째, 어릴수록 동성애가 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II. 논평

셋째, 논평자가 안타까운 지점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청년들과 비기독교청년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점점 접촉점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답을 기다린다.

옥고를 통해 기독교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의 올바른 이해에 큰 도움을 주신

